

민천주보

제2635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2020년 9월 20일 |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용현동 성당

입당송 |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제1독서 | 지혜 3,1-9

화답송 | 시편 126(125),1-2ㄱ.2ㄷ-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로마 8,31ㄴ-39

복음 환호송 |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 루카 9,23-26

영성체송 |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교구장 사목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8)

이 주의 성경쓰기표

요 일	20 (주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토)
성경 / 장	콜로 2,20-3,17	3,18-4,18	미 사	1테살 1,1-2,8	2,9-3,13	4,1-4,18	5,1-5,28
확 인							

순교자 성월을 보내며

“나는 천주교인이요. 또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는 9월을 순교자의 성월로 정하여,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이런 노력을 통해 순교자 신심이 깊어지도록 모든 이들을 초대합니다. 9월을 지내며, 특별히 한국 순교성인 대축일을 지내며, 한국 순교성인들의 전구로 우리 모두가 더 깊은 신앙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전구를 통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을 보내며 순교자 신심을 고양하기를 교회는 원합니다. 그러면 순교자 신심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적 신앙의 되돌아 봄입니다. 즉 박해시기의 순교자들이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며 마침내 죽음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인 그 모습을 일상 안에서 닮아 가고자 노력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랑이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즉 순교자들이 신앙과 삶을 통해 증거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 생활 속에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 신심의 두 방향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보여준 하느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교자들의 삶의 모습과 신심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순교자들의 생활과 증거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특히 순교자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달리, 현재의 상황에서는 물리적 박해가 없기에, 더더욱 순교자들의 삶과 우리 삶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물리적 박해가 아닌, 보이지 않는 박해가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다고 말할 하지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순교자 성월도 지나가는 시간 속에 묻혀질 뿐입니다.

순교자 성월을 보내며 순교자의 삶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모든 이들의 모욕 속에서 홀로 십자가상에 매달리신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난에서 죽음으로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아리 마태아 사람 요셉이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복음서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명으로 자신의 무덤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부유한 사람이었고(마태 27,57), 의회 회원이었지만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참조, 루카 23,51).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지 않고, 함께 죽음을 지켜봅니다. 사실 의회 회원으로 십자가 곁에 있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 있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등져 도망가고, 신앙을 버리며, 신앙의 의미가 없다고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는 십자가

결에서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함께 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의회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그는 홀로 의회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루카 23,51). 더구나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정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합니다(마르 15,43).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정당화할 때, 그는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사형선고가 잘못된 것임을 상징적으로 항의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모든 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고 할 때 보여준 아리 마태아 사람 요셉이 보여준 행동은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내어준 무덤에서 새 생명의 출발점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늘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비대면과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미사 봉헌을 중단 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설령 미사를 봉헌하더라도, 성가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며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 낯설었던 모습이 이제는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순교자 성월의 의미를 찾고, 순교자의 신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크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리 마태아 사람 요셉이 보여준 행동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던 예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을 다양한 모습으로 고백하였던 모습이 너무도 깊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상황 속에서 신앙을 고백했던 우리의 삶이라면, 코로나-19 상황과 이후 상황이라고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늘 주님을 향한 깊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그분께 대한 고백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 김성우 안토니오는 배교의 독촉 속에서 불변하신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또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순교자들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큰 힘과 용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하느님을 향한 깊은 신앙 고백을 매 순간 하면서 지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의 대축일을 지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순교자 성월에

+ 정 신철

천주교 인천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한국순교자들의 증언자 박순집 베드로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해에 103위 순교 성인을 시성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많은 성인을 배출하고 성인들을 공경할 수 있는 데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인천가톨릭대학교와 갑곶 순교성지에서 유해를 모시고 있는 박순집 베드로(1830~1911)이십니다.

박순집 베드로가 증언자의 삶을 살게 된 연유는 그의 아버지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해박해 때 박순집 베드로의 아버지 박 바오로는 순교하신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하여 순교하신 주교님, 신부님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안장하고 아들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훗날 성교회에서 성직자 무덤을 찾으면 잘 가르쳐줘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박순집 베드로는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난 뒤 제4대 조선교구장 베르뇌 주교님과 신부님, 평신도 신자들이 새남터에서 몇 차례 순교하는 것을 군인으로 참여하여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심하고, 시신을 찾아내어 새남터 부근에 임시 매장한 후 다시 와고개 매장지(지금의 용산우체국 뒤)로 이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남종삼(요한)과 최형(베드로) 시신도 와고개 매장지에 안장하였으며, 전장운(요한), 정의배(마르코)의 시신은 훗날 노고산에 안장하였습니다. 그 후 병인박해가 심해지자 박순집 베드로의 일가도 결국 검거망에 걸려들어 1866년부터 2년 동안 16위의 순교자가 탄생하였으나 박순집 베드로는 여러 번 행해졌던 박해의 검거망을 기적적으로 피해 위기를 모면합니다.

박해가 끝나고 박순집 베드로는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을 입국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과, 순교자의 유해가 묻혀있는 곳 등

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언을 엮어 153명 순교자의 행적이 밝혀진 『박순집 증언록』이 총 3권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절두산 순교자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후 1899년에는 박순집 베드로의 도움으로 와고개 매장터에 있던 7명의 유해, 1901년에는 삼성산에 묻혀 있던 앵베르 주교님,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의 유해, 1909년에는 노고산에 묻혀 있던 남종삼(요한)과 최형(베드로)의 유해가 발굴되어 안치되었습니다. 그 후 가족과 함께 인천 제물포로 내려와 답동 본당 초대 본당신부 빌렘 신부님을 도우며 전교에 온 힘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박순집 베드로가 안 계셨다면 많은 순교 성인들은 이름 없는 순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순교하신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의 시신도 영영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박순집 베드로는 성직자들의 시신을, 성한 사람은 둘러엮고 시신이 없는 목을 머리로 묶어서 그 머리털을 입에 물고 밤길을 내달려서 수습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순교자들의 유해를 빼내어 모시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유해를 수습하고, 그 행적을 증언해 주신 박순집 베드로. 비록 순교하시지는 않았지만 박순집 베드로는 우리에게 순교자들의 삶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박순집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증언해 주신 순교자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순교자 성월이 되어야겠습니다.



조용수 베드로 신부
영종 본당 주임

이주의 암송구절



총애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힘을 내어라! (다니 10,19)

바오로의 옥중 서간 I - 에페소서, 콜로새서

바오로 서간 가운데 에페소서, 필리피서, 콜로새서, 필레몬서, 이렇게 네 서간을 '옥중 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간들의 집필 배경으로 바오로 사도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참조: 에페 3,1; 4,1; 6,20; 필리 1,7.12-18; 콜로 4,3.10.18; 필레 9.10.13).

이 서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페소서와 콜로새서는 어휘나 문체, 신학적 주제들, 심지어 서간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서로 매우 비슷합니다. 왜 이런 유사점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서간의 선후 관계에 있어, 먼저 쓰인 콜로새서의 내용을 에페소서가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켰다는 생각에는 대다수가 동의합니다. 이 서간들이 바오로 사도의 친서냐 아니냐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도 매우 뜨거운데요, 친서가 아닐 것이라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합니다. 그런데 바오로의 친서가 아니라고 해서, 그 중요성이 덜하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바오로의 제자들 또는 그의 추종자들이 존경의 마음으로 사도의 이름을 빌려 적었을 이 서간들은 그의 신학 사상을 충실하게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페소서는 다른 바오로 서간들에 나오는 주요 신학 사상을 대부분 담고 있기 때문에 '바오로 신학의 요약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은총을 통한 구원(2,5.8-9);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량(1,7); 성령의 작용(2,18.22; 4,3); 다양한 은총의 선물(4,7.11)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1,23; 4,1-16);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2,11-22); 바오로의 사도직(3,1-8). 이렇게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종합하는 에페소서의 중심 주제를 뽑으려면, 그것은 "신비"(1,9)라고 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례 안에서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에페 1,3-14의 찬가는 하나님의 구원, 즉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1,3) 우리에게 내리기 위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놀랍게도 세상 창조 이전으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1,4-5). 이렇게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충만하게 실현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지속되는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신앙인들은 서로 일치하여 사랑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4,1-16). 이렇게 에페소서는 창조 이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구원 과정을 체계적으로 그리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언하는 데 주력합니다.

콜로새서는 콜로새 공동체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들 때문에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듯한 말"(2,4),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2,8) 등으로 표현되는 그들의 가르침은 헬레니즘적 사고에서 기인하는 이단적인 요소(참조: 2,8-10.18.20)는 물론이고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참조: 2,16.21)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들은 구원에 다다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다른 무언가를 더 행하거나 극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콜로새 신자들이 처음에 들었던 진리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콜로 1,15-20의 '그리스도 찬가'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노래합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1,17-19).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 안에서 그리스도 외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믿음, 그리고 그에게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비로소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정천 사도 요한 신부 ·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청소년사목국 소식

제1회 인천교구 청년 1945 창작 생활 성가제

† 푸르른 그대가 희망입니다.

청소년사목국 청년·청장년부에서는 교구 내 청년들의 찬양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성가 보급을 위해 “제1회 인천교구 청년 1945 창작 생활 성가제”를 진행합니다. 작년 청년 신앙 축제 ‘일곱 색깔 무지개’를 진행하며 수준 높고 참신한 창작곡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인천교구 안에서도 순수 창작곡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 19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의 신앙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창작 생활 성가제를 통해 지쳐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풍요로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푸르른 청년들의 찬양 나눔에 함께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찬양을 통해 지쳐있는 다른 이들의 마음도 보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일시** : 2021. 1. 30.(토)

■ **장소** : 보니파시오 대강당

■ **대상** : 인천교구 교적의 19세 이상 ~ 45세 미만의 청년·청장년
(개인 혹은 단체)

■ **주제성구** : “그분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시편 33,3)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1장, 교적 사본, 참가곡 음원 및 악보

■ **신청마감** : 2020. 10. 30.(금) 18시까지

■ **시상내역** : (1등) 100만원 상금

(2등) 70만원 상금

(3등) 50만원 상금

*본선 선발 7팀 전원 음원 제작 등록 지원

신청서 작성



세부사항 공문 확인



※ 당국의 방역지침 및 행정 명령을 준수하여 준비 및 진행할 예정이며,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및 모집

■ **나도 실천하는 신앙인 _ 시즌3**

기간: 9월 1일(화) ~ 기부금(400만원) 달성 시

대상: 교구 내 유·청소년, 교리교사, 청년, 청장년

방법: 작성일 기준 주일복음 필사 & 미사지향 작성 후 SNS 게시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사목국 SNS 참고)

※ 기부금 전액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소년사목국 SNS



교구 소식

교구 안내

한가위 위령 미사

1. 마전 묘원(집전: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 일 시: 9월 30일(수) 11시
 - 장 소: 인천시 서구 마전동 산164
2. 백석 하늘의 문 묘원(집전: 총대리 이용권 베드로 신부)
 - 일 시: 9월 30일(수) 11시
 - 장 소: 인천시 서구 드림로 472
3. 포동 묘원(집전: 황성재 미카엘 주임 신부)
 - 일 시: 10월 1일(목) 11시
 - 장 소: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12번길 20-16

교구 안내

대구대교구故 최봉도 신부 저서 판매·배포 금지

「희망기도, 최봉도 신부가 알려주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방법」이 교구에서 인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회 내 전시, 판매, 배포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후원 안내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성지 조성 후원 안내

신헌 131-016-645915 (재)인천교구천주교유지재단
• 성지 완성 후 후원 회원님의 이름을 성전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 성지개발 위원회 032-765-6916

교구청 알림

◆ 제10기 환경교리학교

때: 10/5~11/16 매주(월) 19:00~21:00

곳: 사회사목센터 4층

☎ 환경사목부 032-765-7255

◆ 500차 카나혼인강좌

때: 11/15(주일) 13:30~18:30

곳: 교구청 이안나 홀

인원: 선착순 30쌍

☎ 가정사목부 032-762-8888

교육 | 피정

◆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 02-2274-1843, 4

홈페이지: cdcc.co.kr

◆ 젊은이 피정

때: 9/25 17:00~27 13:00

곳: 여주 스승예수 피정의 집

대상: 길을 찾는 35세 이하 미혼여성

참가비: 2만원

☎ 010-9816-0072

미사 | 행사

◆ 인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월례미사

때: 9/21(월) 10:00 켈기도 / 11:00 미사

곳: 성모 순례지

☎ 010-4375-3828

모집 | 일반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정규직) 채용

분야: 사무직(1명), 조리직(1명)

제출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림 참조

마감: 10/30(금) 14:00 접수 서류까지

이메일 문의: mano@cbck.kr

◆ 평화방송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의 발성교실

때·곳: (목) 19:00~20:30 사회복지센터(중구 답동로23)

☎ 010-9921-9364

◆ 글라셋선교수도회 심리 상담

심리상담(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관계, 직장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 진로상담

상담료: 1회~5천원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곳: 부천시 심곡본동 608-7 ☎ 010-7794-6031

◆ 커피바리스타교육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창업, 홈바리스타, 로스팅, 자격증 [주1회~12주]

담당: 이경훈 신부

(사)하랑 / 가톨릭바리스타협회

☎ 010-9040-8306, 010-2511-6845

http://club.catholic.or.kr/barista

◆ 2020년 2학기 노틀담 원아 추가 모집

숲이 아름다운 노틀담 유치원에서

2학기 원아 추가모집을 합니다.

연령: 2015/1/1~2016/12/31생

☎ 032-542-1060

◆ 개교 120주년 인천박문초등학교

추석은 집에서(코로나 예방 본교 캠페인)

마스크+거리두기=등교수업

전학년 전교과 실시간 화상수업 실시

전입 및 입학 문의 ☎ 032-810-8595

◆ 2021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수시 모집

수시접수기간: 9/23(수)~28(월)

모집대학: 조형예술대학, 간호대학, 신학대학

전형방법: 학생부 교과, 면접, 실기반영

☎ 송도국제캠퍼스 입학홍보과 032-830-7022

◆ 2021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수시 모집

원서접수: 9/23(수) 9:00~28(월) 18:00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전형: 성적자 추천 전형 등 8개 전형

담당: 권혁민 루카 입학사정관 ☎ 051-510-0705

◆ 2021학년도 꽃동네대학교 신입생 수시 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원서접수: 9/23(수)~28(월) ☎ 043-270-0100

◆ 목포 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수시 모집

보건복지계열 특성화 4년제 대학

취업을 전국 4년제 대학 3위, 광주·전남 1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모집학과 및 인원: 간호학과 87명,

사회복지학과 16명, 유아교육과 14명

원서접수: 9/23(수)~28(월)

인터넷 원서접수처: 유웨이

입학상담 ☎ 061-280-5108, 5150

순례 | 기타

◆ 국내성지순례

10/14~15 부산교구 8-1차 우등버스 진행

15만 5천원 / 사당역 1번출구

공영주차장 7:30 출발

☎ 김천래 바오로 010-9200-35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교구장 제11차 지침

참조: 인천교구 제2020-64호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교구장 제11차 지침 공문

인천교구 제2020-58호와 59호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교구장 제10차 지침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완화에 따라

인천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는 2020년 9월 15일(화)부터 미사를 전면 재개합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므로 미사 외의 기도 모임, 친목 모임, 단체 식사, 성경공부 등

소모임은 10월 4일(주일)까지 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생활수칙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